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느라 만나는 시련들

다니엘 3:8 - 12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본문 말씀의 느부갓네살은 악기의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에 던져 넣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점성가들에게 행정직을 하도록 자리를 주었지만, 다니엘은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 점성가들은 다니엘을 시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바빌론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고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불타는 화덕에 들어가야 되는 위기를 맞이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련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만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박해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고,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환난과 핍박 이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시련은 우리 믿음을 압박합니다

이 시련은 우리 믿음에 압박을 가하고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세속적인 일에 동참하도록 유혹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중 몇명은 바빌론에 와 포로로 일해야 했고, 잘못된 경우 그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